

인생무상 느껴 출가한 신라왕자...중국 선 '나한'

특별기고

정중종의 조사 신라승
무상 선사를 찾아서 上

중국의 오백나한이 된 무상 선사

2001년, 중국 운남 공족사의 오백나한상 중 신라 출신의 한 스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중국의 오백나한상에는 부처님의 제자 뿐만 아니라 일찍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이름을 떨친 선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유일하게 외국 출신의 스님으로서 나한으로 추앙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신라승 무상(無相: 684~762) 선사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무상 선사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상 선사가 누구인가? 선사의 행적이 얼마나 지대하기에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추앙 받아 왔을까? 근 10년이 지난지만 여전히 선사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필자 역시 이전에는 무상 선사라는 분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우연히 성도에 있는 대자사를 참배하여 그곳에 무상선사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분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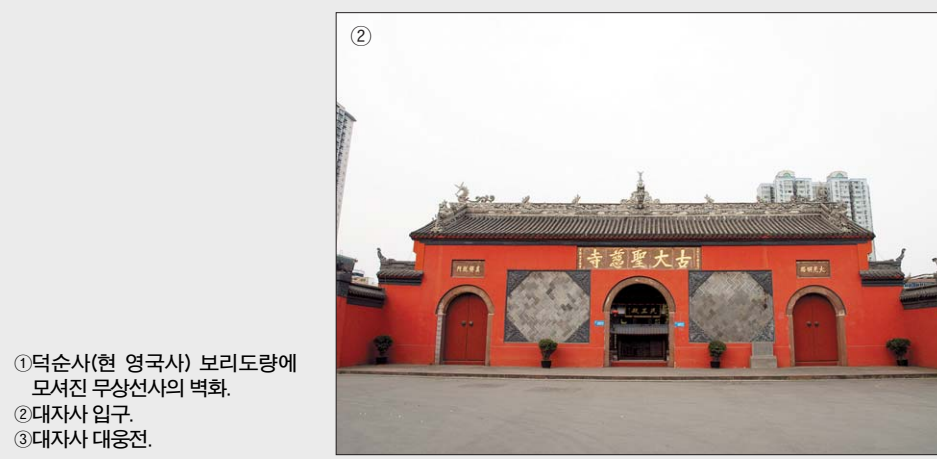
더없는 부끄러움과 호기심에 무상 선사에 대해 공부하고 기회를 얻어 선사의 자취를 찾아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 잊혀진 오백나한, 선불교 정중종(淨衆宗)의 개창자, 두타행(頭陀行)의 실천자 무상 선사의 행적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당으로 건너간 신라 왕자

현재 무상 선사의 행적과 사상을 전하고 있는 주요자료로는 돈황에서 발견된 <역대법보기>, 신청의 <북산전>, 규봉 종필의 <원각경대소초> 등이 있다. 이 밖에 <송고승전>, 티베트의 고대역사서 <바세전>, 돈황에서 발견된 <무상오경전>, <김신사 어록> 등에서도 선사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무상 선사는 서기 684년 신라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누이동생은 강제 결혼에 저항해 칼로 얼굴을 자해하는 일이 생겼다. 이에 무상 선사는 "약한 여자도 정조를 알고 있는데 어찌 장부로서 무심하라" 하며 발심하여 군남사로 출가했다 한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훗날 무상 선사를 죽이기 위해서 중국으로 자객이 왔다고도 하는데, 당시 왕가의 권력 투쟁에 환멸을 느껴서 출가했을 수도 있으리라.

이후 당으로 건너가 황제를 알현하고 스승을 찾아 각지를 돌다가 촉(蜀: 지금의 사천성)에 이르렀고, 자주(資州) 덕순사(德純寺)를 찾아가 처적 스님의 제자가 되고 그에게서 '무상(無相)'이라는 법명을 얻었다. 일설에 의하면 처적 스님이 무상 선사가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귀인을 맞을 준비를 시켰다고도 하며, 처적 스님이 선사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로 만나주지 않자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불태움으로써 불심을 증명하니 그제서야 제자가 맞았다고도 한다. 무상 선사는 처적 스님 밑에서 2년간 선불교를 배



처적 스님 문하서 2년간 참선... 금곡산서 10여 년간 두타행 수행할 때 맹수 다가오자 몸보시 하려했으나 오히려 호위해줘

우고 인근의 금곡산으로 들어가 10여년간의 두타행에 매진하게 되니, 덕순사는 이후에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정중종을 개창하게 한 근간이 되는 셈이다.

두타행을 통한 깨달음

무상 선사는 2년 간의 선법 공부를 마치고 난후 인근의 금곡산으로 들어가서 좌선과 두타행에 몰입했다. 야산과 무덤가를 가리지 않고 수행을 했고, 한번 기도도 들어가면 5일 입정(入定)을 원칙으로 삼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먹는 것은

최소한으로 자제했고 그나마 양식이 떨어지면 흙을 파먹고 허기를 채웠다. 또 항상 초의(偉衣)를 입고 제멋대로 자란 머릿도 껌치 않아, 사냥꾼이 짐승으로 오인해 활을 겨누기도 했다 한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무상 선사가 수행할 때 맹수가 다가왔는데, 선사는 오히려 웃을 벗고 누워서 맹수에게 몸보시를 하려 했으나 맹수는 선사의 몸에서 냄새만 맡고 이내 사라졌고, 오히려 호랑이가 수시로 선사를 호위했다고 한다. 당시의 두타행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중생들에게 얼마나 경외의 대상이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중에 저자 거리로 나와 낮에는 무덤에서, 밤에는 나무 밑에서 좌선하는 두타행을 계속하자 사람들이 그를 마음으로 존경하여 정사를 지어 받쳤다고 한다.

무상 선사는 두타행을 통해서 무엇을 참구하였을까? <역대법보기>를 보면 스승 처적 스님과 무상선사의 선문답이 나온다.

"너는 금곡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무망합니다(總不作, 隻沒忙)."

"네가 그처럼 바쁘니, 나 역시 바쁘다(汝與彼忙, 吾亦忙矣)."

무상 선사가 두타행을 했던 금곡산 석암(石岩) 터는 영국사에서 몇 리 떨어진 곳인데 아직도 선사가 수행하던 그 때의 모습이 남아있다. 석벽 곳곳에 조성된 불상은 그 연원이 당송대에 까지 이른다 하니, 그 중 어딘가에는 무상 선사와 대면하며 깨달음을 인도한 부처님이 남아 있을 것이다.

혁명으로 잃어버린 것들

자중현 덕순사지극의 영국사로 가려던 성도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이른 봄에도 주변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여 눈을 즐겁게 한다. 굽이진 도로를 따라 자중으로 향하니 성도의 평지에서 점점 낮은 구릉의 산지로 접어들었다. 검게 그을린 주민들의 얼굴에선 아직 세속의 맛속이 묻어나지 않는 순박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중 시내에서 다시 2km 외곽으로 빠져 나가면 영국사에도 달한다. 제일 먼저 웅장한 산문전이 일행을 맞이했다. 산문전에는 네 개의 현판이 길게 걸려 있어 정중종과 보당종의 발원지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법목가사전사신라삼태자(梵木袈裟傳朝鮮羅三太子)', '덕순정중보당중한불맥선종(德純淨衆保唐中韓佛脈禪風)' 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무상 선사가 전법가사를 이어받은 신라의 셋째 왕자란 뜻이며, 정중종과 보당종의 본원 덕순사에서 중국과 한국의 선불교 맥을 잇는다는 뜻이었다.

산문전을 들어서면 대웅전이 나오고 그 뒤로 난 계단을 올라서면 보리도랑이 나온다. 이 보리도랑에 지선, 처적, 무상의 3대 조사가 모셔져 있다. 지선 스님은 5조 홍인 대사의 10대 제자로 많은 경전을 편찬했고, 측천무후가 그의 법력을 흠모하여 내전으로 불러들여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지선 스님이 덕순사로 돌아갈 때 측천무후가 보관하고 있던 달마 조사의 전법가사를 그에게 전해줬다. 전법가사는 처적에게로 전해지고 다시 무상 선사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이 기록은 논란이 야기 되는 부분이겠지만 적어도 당시 무상 선사의 원력과 사상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보리도랑 내부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모두 무상 선사의 행적과 신통력을 표현하고 있었다. 선사의 위상이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 영국사가 문화혁명 때 철저히 파괴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야 재건에 들어가서 모두 새로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미신 타파라는 미명하에 모든 건물과 경전, 및 유물들을 다치는대로 부수고 불살랐다고 한다. 현재 무상과 정중종에 대한 자료가 너무도 부족한 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언가를 잃어간다는 것일지나, 더러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회상시키고야 마는 법이다.(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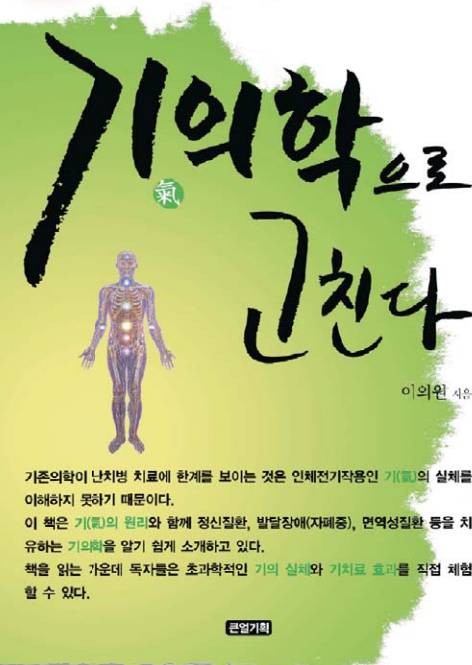
글·사진=오종철 중국통신회원 (中사천성 사천대 고고학과 석사과정)

수행의 걸림돌 상기증 어떻게 하나?

의사 한의사가 말하는 기의학 치료

화제의 시간

병원에서 안되는 병 어떻게 하나?



기존 의학이 난치병 치료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인체전기작용인 기(氣)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氣)의 원리와 함께 정신질환, 학습장애, 발달장애, 통증질환, 면역성 질환 등을 치유하는 기의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책을 읽는 가운데 독자들은 초과학적인 기의 실체와 기치료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지금 나는 변호사로서 방송 일로 늘 바쁜 가운데도 나의 건강 관리를 위해 어원장의 기의학 치료를 받으려 다닌다.

그 곳에서 마주치는 암이나 정신질환 환자들의 혈액색과 모습이 나날이 호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한다. 인간의 생명과 치유에 대한 기학원의 심오한 통찰이 담긴 어원장의 책에는 병은 인간의 치유 뿐 아니라 이 시대와 사회의 병까지도 치유하는 길이 보인다.

- 강지원(변호사, EBS.R, KTV방송 진행자)

인간은 자연이다. 이 평범한 사실을 잊고 살기에 우리는 병에 시달린다. 날짐승들 다 몸을 피하고 오직 인간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인간만이 앉아서 쓰나미를 뒤집어쓴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이희원 선생은 말한다. '잃어버린 생명의 기운을 되찾는 것이 병을 다스리는 최상의 의학'이라고.

- 조용현(조선일보 칼럼니스트) 고수기행 중에서

수행자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 상기증(上氣症)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 상기증(上氣症)의 증상 -

1. 명치와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이룬다.
2.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 옥죄인다.
3. 어깨나 목덜미가 당기거나 아프다.
4. 뜨거운 열기가 머리쪽으로 치밀어 오른다.
5. 얼굴이 별것처럼 달아오르는 증세가 있다.
6. 눈이 별것처럼 충혈되고 건조하며 피로하다.
7. 만성피로, 공황장애, 불면증이 생긴다.
8. 이명, 어지럼증, 구토, 메스꺼움이 나타난다.
9. 입이 마르고, 혀나 목안이 잘 헐린다.
10. 하기가 되지 않아 허리 무릎에 통증이 온다.
11. 일반 병원, 한방 치료로 별 효과가 없다.

"불교수행과 一氣"

달마대사가 연변9년에 팔다리가 말랐다는데, 기운이 바로서면 수행을 할수록 기가 더욱 잘 돌아 팔다리가 튼튼해지게 된다.

강의주제

1. 한국불교의 삼신각, 칠성각의 의미와 기능
2. 위빠사나 수행으로 사마리아를 이루는 법
3. 수행자의 상기증의 예방 및 치료

장소

도암한의원 세미나실 (양재역 2번출구 100m 전방)

일시

4월 11일 (토요일) 17시

4월 18일 (토요일) 17시

예약접수 무료 / 02-585-8868 전화문의

홈페이지 <http://cafe.daum.net/jinindo>